

# 전미준에 거는 기대



(주)시스코프/대표이사 여인갑

**전** 문가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전미준이 발족되었다. 여의도, 강남, 강북 각 지역모임의 회장을 비롯하여 여성, 교수, 신입회원을 대표하는 회원들 그리고 전임회장과 몇몇 자원하여 참여한 회원들로 구성된 전미준은 첫 모임부터 진지한 주제들로 열기를 더 해 나갔다.

협회이름이 너무 전근대적이라는 발언이 불씨를 집혀 주었다. 사실 정보처리라는 용어 자체가 사장된지는 10년도 훨씬 더 되었지 않은가. 정보기술을 총 칭하는 IT가 언론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정보통신으로 영역을 확장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데 구지 정보처리를 협회 이름으로 고집해야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회원 영입에 너무 소극적이란 주장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500명도 안 되는 회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자성과 함께 차라리 만 명 정도로 세를 부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협회회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졌다. 2,3년 전부터 슬

술 나오기 시작한 협회회관 이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불문시 되어왔던 문제요 누구하나 감히 회관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했던 문제였으나 전미준이라는 우산 안에서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협회에서 진정으로 회원들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질문도 고참 회원들의 머리를 숙이게 했다. 평소 동경해오던 협회인데 막상 회원이 되고 보니까 좀 실망해 진다는 솔직한 의사 표시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볼 용기도 없었다.

그 외에도 협회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회원들이 신기술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봐라, 여성회원 수가 너무 적다. 등 약속된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주제와 건의 사항들이 튀어 나왔다.

이러한 주제들은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여 지역 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이고 전미준은 전미준대로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주제들을 가다듬어 미래의 비전을 세워 그 청사진을 전 회원에게 보여줄 것이다.

정보기술시대를 선도하며 일생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협회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세워 보는데 모든 회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편, 협회 20년사 발간을 위한 준비도 그 기초는 마무리 되었다. 이젠 만들어진 각 방 속에 세간을 들여 놓아야

한다. 삼성, 현대, LG, SK, 대림과 같은 기업체방이 있고 금융, 건설, 항공과 같은 산업체방이 있는가 하면 행정, 국방, 교육과 같은 국가기간방들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회원 각자가 어떤 방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가 그 실적을 해당 방 속에 쌓아 놔야 비로서 20년사라는 거대한 집이 완성되는 것이다. 20년 전 30년 전의 추억을 되살려 칼라풀한 방들이 꾸며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면 녹음기를 대동하고서라도 회원들을 만나보겠다는 의욕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빨리 써 달라는 재촉이 성화같지만 아직까지 무반응인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행여 편집위원장의 의욕이 떨어질까 걱정도 된다.

하지만 회원 각자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편집위원장께서 용기를 잃지 말고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협회는 회원의 것이다. 우리가 소속회사의 대표로 협회회원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회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우리협회의 특징이지 않은가.

조찬세미나에 누굴 대신 보낼 수도 없고 원고를 써도 회원 각자가 써야 하는 것은 어찌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공동체에 주어진 숙명적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정말 가보고 싶은 모임, 빠지기 싫은 모임, 기다려지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 보기를 기원하면서 전미준에서 그려질 멋진 우리협회의 미래상과 비전을 고대해 본다.